

“회피전략으로 ‘제주형 협치’ 표류”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폐회

김태석 의장 폐회사서 밝혀
4·3특위 활동기간 1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안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등 총 57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4·3특위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4·3특위는 내년 10월16일까지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으며,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철 노력,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4·3관련 각종 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등에 나서게 된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주도정이 의회와의 협력과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7기가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의제선정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부의 조율 문제로 치부하기에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2공항 건설 문제 등 정치적으로 에민하지만 도민의 뜻을 직시해야 할 모든 의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4일 LNG 수송선 SM JEJU LNG 1호 (3300t급)가 처음으로 입항한 제주시 애월항 한국가스공사 LNG인수기지.

강희만기자

“제주 천연가스 시대”… LNG수송선 첫 입항

어제 애월항 제주시지 도착
내달 발전용부터 우선 공급

제주시역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LNG 수송선이 24일 첫 입항했다. 한국가스공사 제주운영사업단은 제주도 친환경 LNG시대를 준비중인 가운데 LNG 수송선 ‘SM JEJU LNG 1’호가 이날 제주시지인 애월항에 처음 입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수송선은 2017년 5월 발주돼 지난 18일 건조가 완료됐다.

한국가스공사 제주시지는 이날 첫 LNG선 입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제주북합발전소(중부발전, 제주시역 최초 가스공급)와 11월 한림북합발전소(남부발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가정용 가스는 소매를 담당하는 도시가스사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청정섬 제주도에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를 공급해 제주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전력에너지 자립에 기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 LNG기지 및 배관망 건설사업에 총 4275억원(제주시지 3135억, 공급배관 1140억)을 투입해 2017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LNG저장탱크 2기(4만5000㎥급), 기화송출설비(60t/시간), 부두 1선좌 및 공급배관(20"×80.09km), 공급관리소(7개소)를 건설해왔다.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35만t(도시가스용 12만t, 발전용 23만t)의 천연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연다

사회협약위 전체회의서 의결
결과따라 도지사에게 권고안도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첫 성과출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24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분과위별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차원에서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

회협약 체결’을 의결했다. 도민토론회와 사회협약 체결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기획운영분과에 위임했는데, 도민토론회는 10월 중으로, 사회협약은 10~11월 중으로 실행기로 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는 우도, 추자도와 임업인 등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초청해 전문가 토의와 방청객 질의답변 방식 등으로 진행해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 우려와 기대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할 예정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토론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10월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10~11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으로, 도내 4개 읍·면(구좌읍, 대정읍, 애월읍, 표선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도, 읍·면(이장단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내 공기업(JDC,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성윤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분석으로 빠른 진단”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감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4일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었을 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소나무 유전자를 발견, 빠른 진단과 조기 방제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면 총 7만여 개의 소나무 유전자 가운데 595개 유전자의 발현패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3개의 유전자를 ‘소나무재선충병 반응 특이 유전자’로 최종 선정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초기에 진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된 지 3~6개월이 지난 뒤에

잎의 침치이나 갈변과 같은 외형적 징후가 나타나며, 그 때 시료를 채취해 소나무재선충의 유무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기존에 이용하던 이 방법은 소나무가 고사한 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한 ‘소나무재선충병 특이 유전자’를 이용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염된 나무를 미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미현기자

2019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시우회에서는 제58회탐라문화제 와 더불어 2019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를 오는 10월 7~8일(09시 부터)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조창 전부분에 대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일이 담겨있는 격조높은 전통국악(정악)인 시조 경창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창 종목 및 시상 내역

□올 부: 평시조(1번 창): 1~3등, (대회장상 및 상금)

□갑 부: 사설시조(1번 창): 1~3등, (대회장상 및 상금)

□특 부: 남창질음, 여창질음(2번 창): 1등(제주시장상 및 상금) 2등, 3등

□명인부: 중허리시조, 사설질음, 여창질음(3번 창) 1등(한국시조명인협회 이사장상 및 상금) 2등, 3등

□국창부: 각시조, 온질음, 우조질음, 여창질음(4번 창) 1등(도의회 의장상 및 상금), 2등, 3등

□대상부: 완제사설, 온질음, 우조질음, 우시조, 여창질음(5번 창) 장원(도지사상 및 상금), 최우수상, 우수상

(단 시조창 각부별 전국대회 1등 수상자는 같은부에 경창할 수 없음)

※ 개최식: 2019년 10월 7일(월) 11시 30분

■문의처: 회장 강문필 010-6648-1269
총무 오성집 010-2696-4994

전국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 대회장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시우회 회장 강문필

2019년 노사시민한마음마라톤대회

■대회목적: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노사시민의 범시민적 화합과 단결의 창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조성하고자 함.

■일시: 2019. 10. 26(토) 09:00~12:00
-개회식: 09:00
-출발시간: 10km 09:30분, 5km 09:35분

■장소: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옆 광장
■대회종목: 5km, 10km (간 타임 측정-칩 없음)
※코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옆 광장(유채꽃 광장) ↔ 도남한아파트 ↔ 연북로 ↔ 병문전(5km코스반환점) ↔ 부민정려식장 ↔ 유리내시당앞(10km코스반환점)
■참가비: 5,000원(입금자명은 참가신청서 성명 및 단체명과 동일하게 입금요망)
▶입금계좌: 예금주(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은행: 11-01-034064 (개입)
-농협: 960-01-013637 (단체)
※개인 신청자는 제주은행, 단체 신청은 농협 입금 요망

■참가신청: 2019. 9. 16(월)~10. 4(금)
▶접수처
-방문 및 FAX접수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753-0003, FAX 757-8246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728-2792, FAX 728-2799
※참가서식 다운로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홈페이지(http://jj.jinchoong.org)
제주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jjwc.org)

■지급품목: 기념티셔츠, 안내책자, 음료 외 무제한 경품

■시상: 청년부(50세미만), 청년부(50세이상) 구분 실시

종목	순위	시상품
5km	남자 1~5위(청, 장년부) 여자 1~5위(청, 장년부)	제주사랑 상품권 (총 40명)
10km	남자 1~5위(청, 장년부) 여자 1~5위(청, 장년부)	

※추첨을 통해 무제한 경품 제공(경품 추첨은 사전에 배부된 배번호로 추첨하오니, 대회시 팔찌 배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제주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주관)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시 육상연맹

2019 제주어 교육 사업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 제주어 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은 물론, 제주어를 배우고 싶은 도민에게 기초적인 제주어를 교육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사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2019 제주어문화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좌명: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
○강좌기간: 2019. 10. 4(금)~11. 22(금)
○강좌일시: 강좌 기간 내 매주 금요일 13:00~16:00
○강좌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1102호(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신청기간: 2019. 9. 23.(월)~9. 30.(월)
○모집인원: 50명(선착순)
○신청방법: 국어문화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halla2712@jejunu.ac.kr)으로 제출
○수강료: 무료(차량 소지자 일일 주차권 배부)
○문의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064-754-2712)
○강좌세부내용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1	제주어의 이해	신우봉	5	해녀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김순자
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주어	배영환	6	관광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보향
3	역사 속의 흥미 있는 제주어	강문중	7	매체로 배우는 제주어	김보향
4	음식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미진	8	제주 문학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동윤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